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S&P 500 2분기 실적 Tracker

AI 경계감에 가려진 사상 최대 실적의 향연

- 2분기 S&P 500 EPS 전년 대비 +46.2% 상승 전망 vs. 전주 +37%
- 데이터센터/AI 인프라 수요로 광범위한 업종에서 구조적 성장 확인
- AMD(美 현지 시간 4일), 웨스턴디지털/샌디스크(5일) 실적 발표, 반도체センチ먼트 반등 여부 확인

WHAT'S THE STORY?

현재까지 약 59%의 S&P 500 기업이 실적을 발표.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율은 85.7%로 지난 10년래 2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코로나 팬데믹 기저 효과가 있었던 '21년 1분기 이후 최고 수준. 2분기 S&P 500 EPS는 전주 +37%(전년 동기 대비)에서 +46.2%로 대폭 상향되었는데, 알파벳에 이어 아마존 실적 발표가 결정적 역할

당초 전년 동기 대비 약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경기소비재 업종 이익은 아마존 실적 이후 +83.8% 급증하였고, 아마존의 EPS는 시장 예상치인 주당 1.82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주당 5.75달러를 기록. 여기에는 알파벳 실적과 마찬가지로 엔스로픽 지분 가치가 상당수를 차지

빅테크의 지분 가치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미국 기업들의 이익 체력은 긍정적이고 성장 기반 또한 구조적. 먼저 데이터센터/AI 인프라 수요가 IT, 산업재, 소재, 에너지, 유틸리티, 부동산 등 구분할 것 없이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중동 긴장과 통화정책 불확실성에도 견고한 경기와 금융시장 유동성 확대로 금융주 실적 또한 1분기에 이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음. 여행, 소재 등 일부 기업이 중동 전쟁 영향에 노출되어 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며 소수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이 높은 두 자릿수대 이익 성장을 기록

금주에는 140개 S&P 500 기업이 실적을 발표. 주요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종료되고, 극단적 AI 경계감은 일부 완화되었다고 판단. AMD, 웨스턴디지털, 샌디스크 등 반도체/저장장치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주가 반응을 통해 반도체センチ먼트의 반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또한 S&P 500 지수에는 편입되어 있지 않지만 4일 장 마감 후 스페이스X도 첫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 스페이스X는 상장 후 주가가 고점 대비 -46.3% 하락한 상황. 회사채 발행과 CAPEX 확대가 부담으로 작용한 만큼 핵심 사업 부문인 스타링크의 수익성과 함께 현금흐름 및 CAPEX 가이드가 중요할 전망. 더불어 테슬라 합병 여부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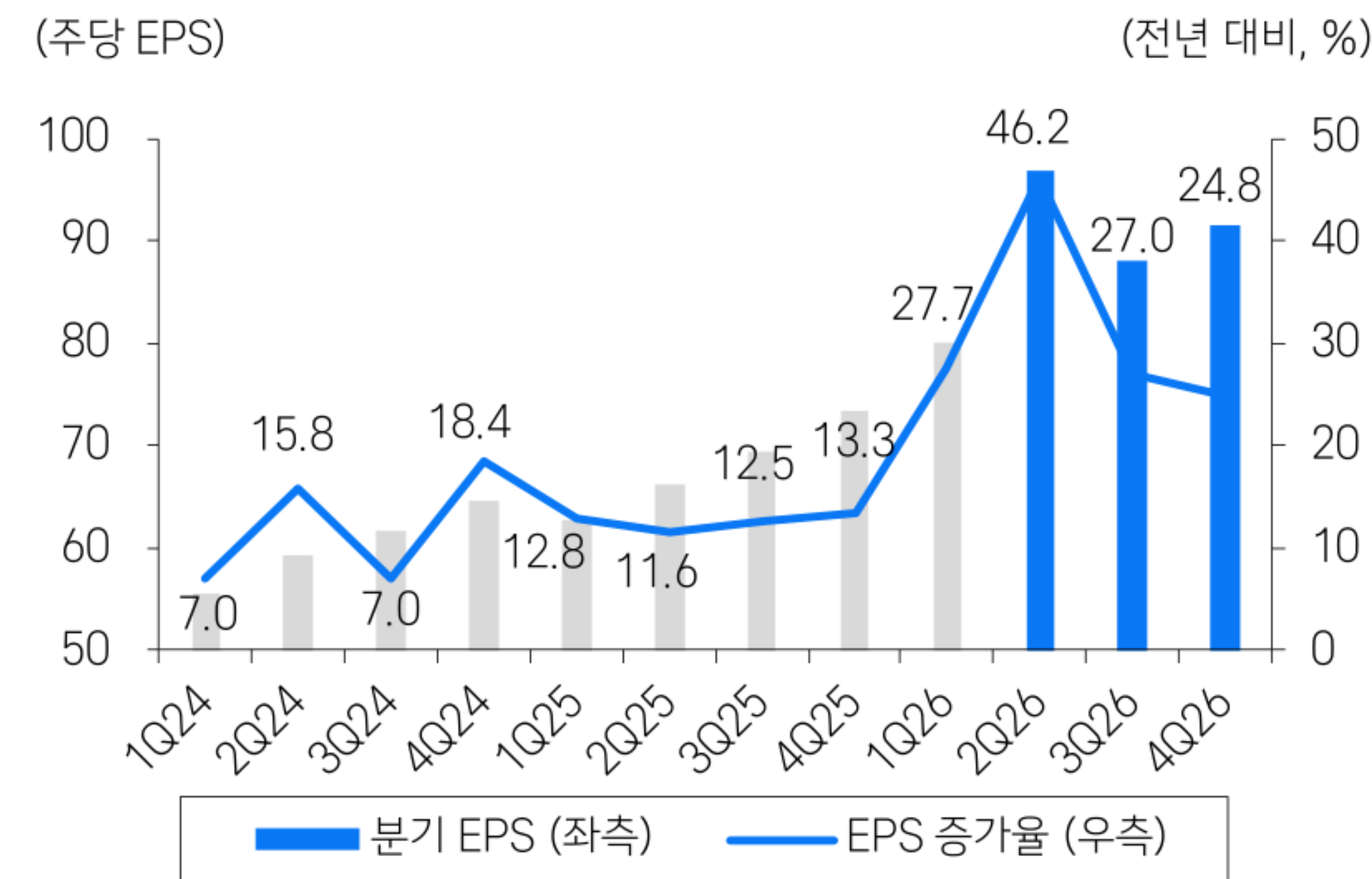
*금주 실적 발표(8.3~7일): 캐터필러, 화이자, 일라이 릴리, 우버,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데이터독, 온세미컨덕터, 팔란티어, 에머슨 일렉트릭, AMD, 도어대시, 웨스턴디지털, 샌디스크, 알버말, 애플빈,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등

(다음 페이지에 계속)

Compliance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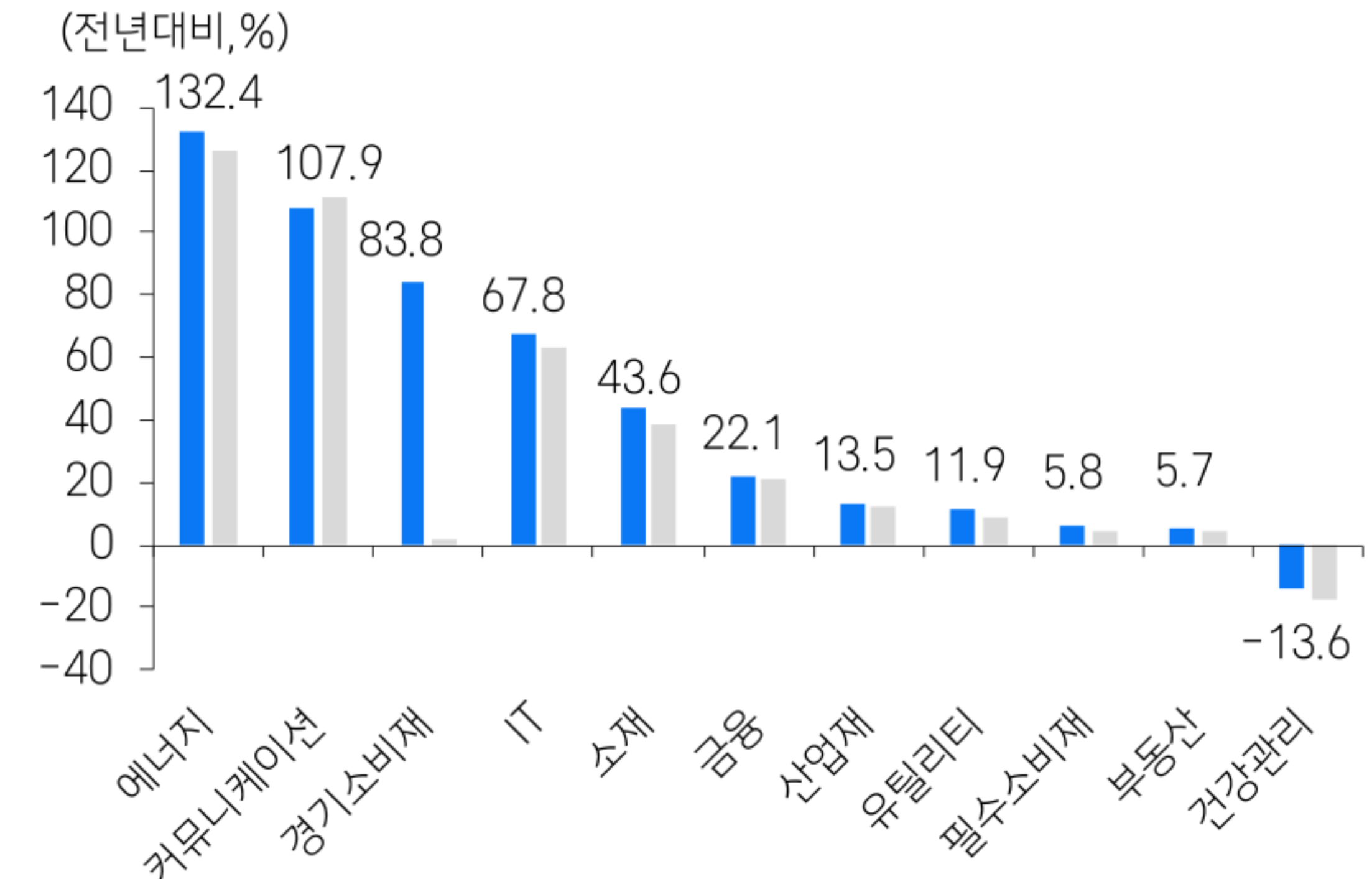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S&P 500 분기 EP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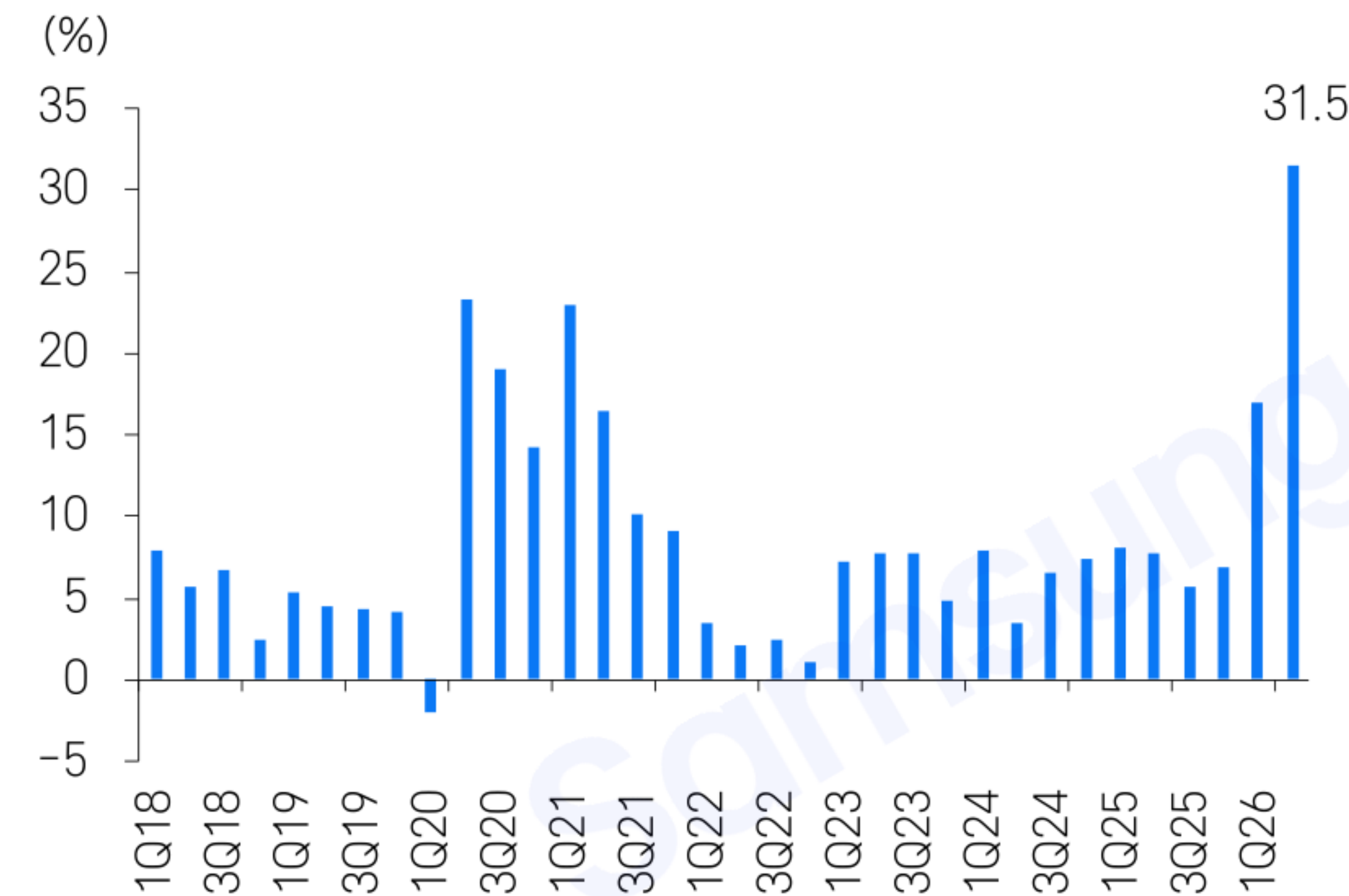
참고: 7월 31일 기준
자료: Factset, 삼성증권

업종별 2분기 EPS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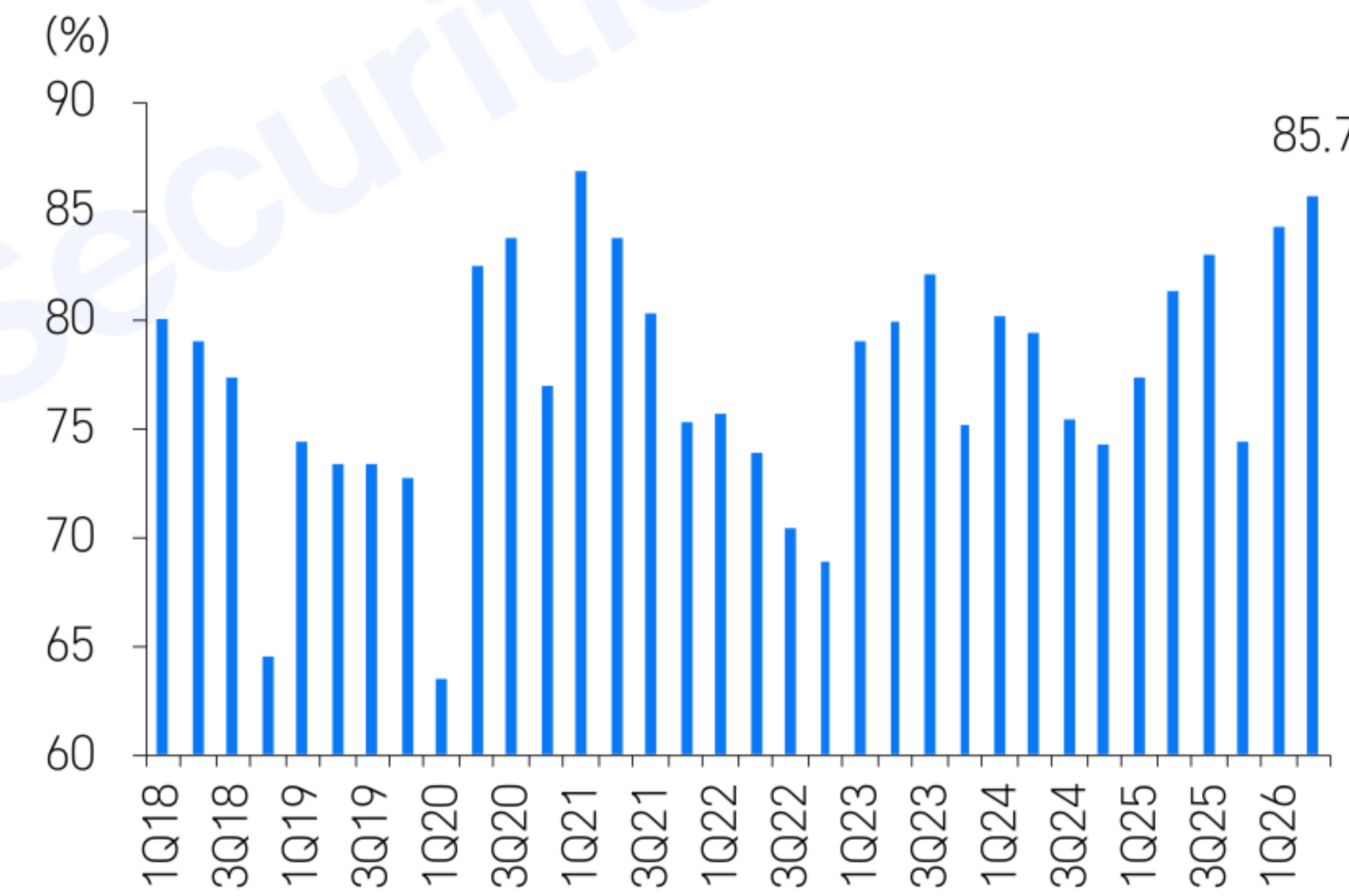
참고: 7월 31일 기준
자료: Factset, 삼성증권

S&P 500 시장 예상 대비 실제 EPS 상향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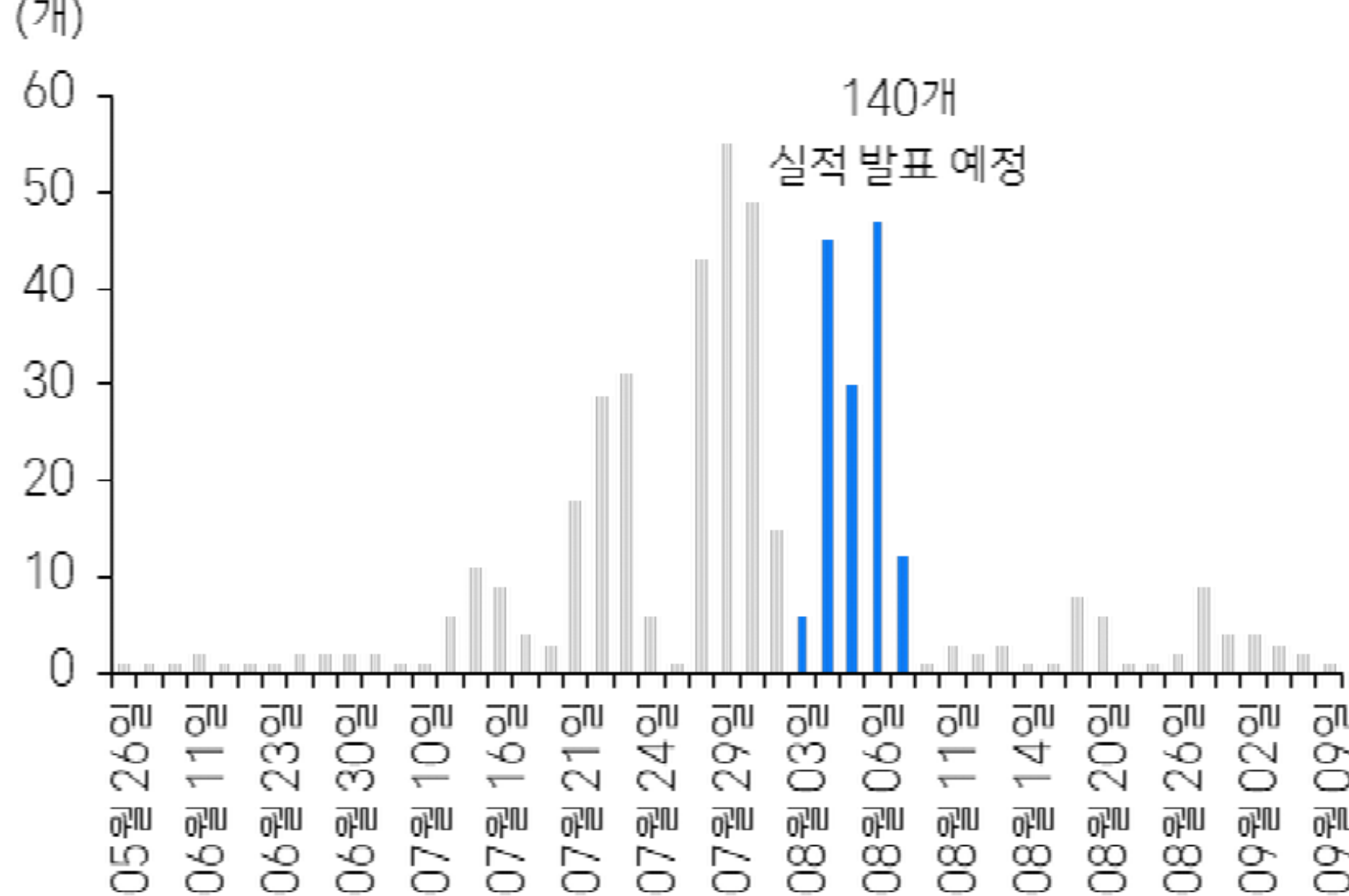
참고: 7월 31일 기준
자료: Factset, 삼성증권

S&P 500 실적 서프라이즈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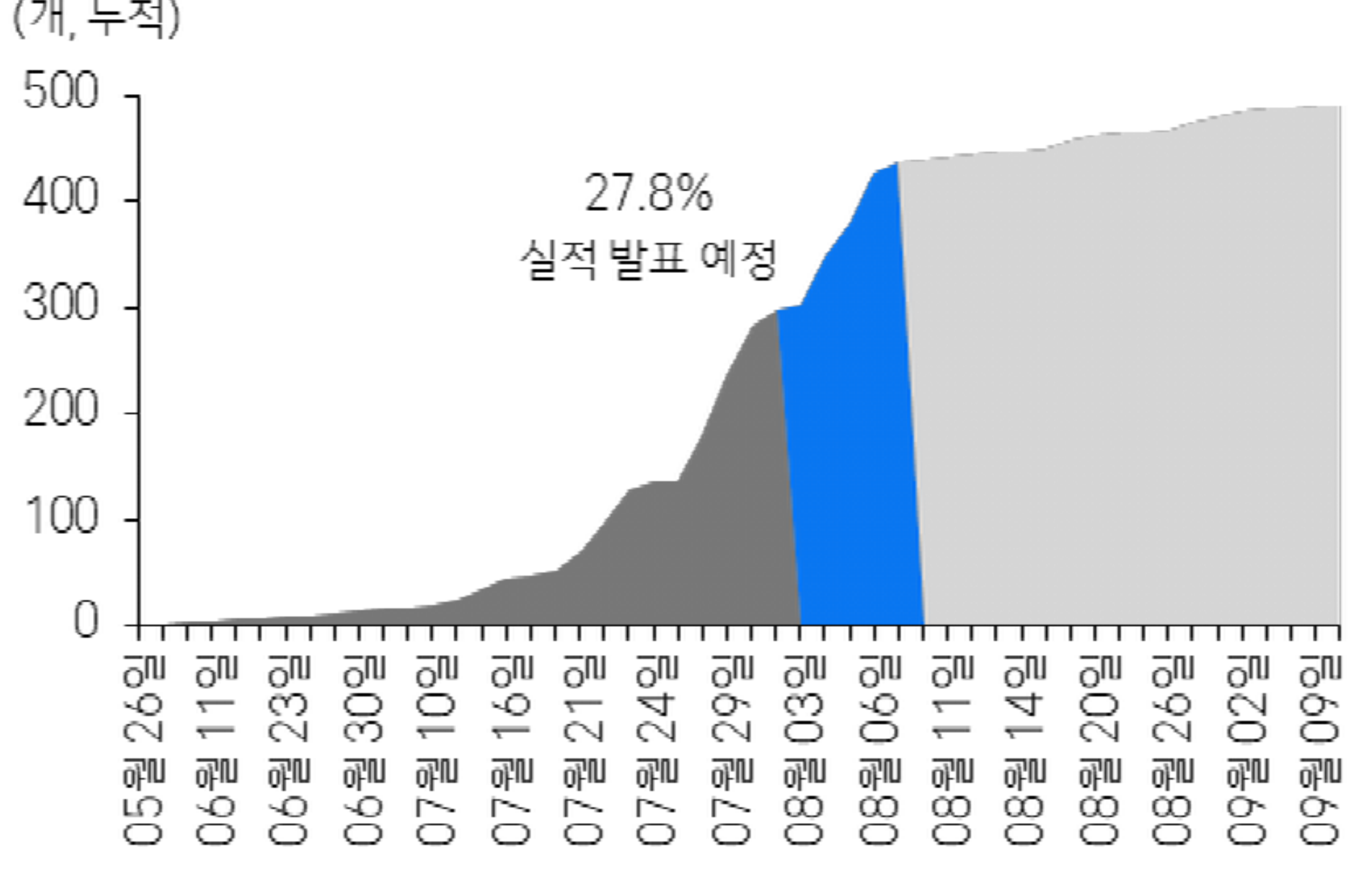
참고: 7월 31일 기준, 예상 대비 (+)이면 서프라이즈
자료: Factset, 삼성증권

일자별 S&P 500 기업 실적 발표



참고: 7월 31일 기준
자료: Factset, 삼성증권

일자별 기업 실적 발표 누적



참고: 7월 31일 기준
자료: Factset, 삼성증권

주간 실적 결과 한눈에 보기 (7.27~31일)

업-1종	기업명	매출		순이익		주가 반응**	실적 핵심 요약
		증가율 (전년 대비, %)	컨센서스 대비*	증가율 (전년 대비, %)	컨센서스 대비*		
IT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스	24.2	부합	27.9	부합	1.80	2분기 매출 24% 성장, 기록적 수주 잔고 81억 달러 달성. AI 설계 수요 확대가 IP 사업(+40%)과 Core EDA(+18%), 시스템설계·분석(+37%) 전반의 성장을 이끌며, 비GAAP 영업이익률 45.5%로 수익성도 개선. 2026년 매출성장률 가이드언스를 19%로 상향 조정
	코닝	17.1	부합	30.0	부합	(12.10)	광통신 부문 매출 +32%(순이익 +77%)가 실적을 견인했으며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매출은 +65% 급성장. Apple·Meta·NVIDIA·Amazon 등 대형 고객사와의 다년 계약을 바탕으로 2028년 연매출 300억 달러, 2030년 400억 달러 목표(Springboard 계획)를 재확인. 다만 태양광 부문은 설비 유지보수로 순손실(-700만 달러) 기록했으나 3분기부터 개선 예상.
	씨게이트 테크놀로지	48.5	부합	120.5	상회	2.29	분기 매출 성장률 +34% YoY, 비GAAP EPS \$5.71(+121% YoY)로 가이드언스 상단을 크게 상회하며 클라우드·AI 수요가 실적을 견인, 비GAAP 매출총이익률은 13분기 연속 확대(52.7%). 데이터센터向 매출은 전년비 +57% 급증했으며, 자유현금흐름은 11억 달러 이상으로 10년 만에 최대 분기 실적. HAMR 기술 기반 exabyte 성장 목표(20% 중반대) 지속.
	테라다인	103.9	상회	333.3	상회	(0.39)	2분기 연속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총매출 13억 달러 이상(+100% YoY), 비GAAP EPS \$2.47(+300% YoY)로 AI 수요가 압도적으로 실적을 주도, 반도체 테스트(Semi Test)·제품 테스트·로보틱스 3개 사업부 모두 전년비·전분기비 성장. AI 관련 매출 비중이 60%를 상회하며 메모리 부문도 사상 최대(2.12억 달러)를 경신.
	애플	16.4	부합	28.7	상회	(7.35)	아이폰(+22%)·맥(+29%)이 견인하며 전 지역에서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 관세 환급(총이익률 기여 약 2%p·EPS 0.11달러)을 반영해도 견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4분기 가이드언스는 환율 역풍(-2.5%p)과 공급계약 확대로 매출 성장률을 9~11%로 제시하며 다소 둔화 전망.
	페어 아이작	25.7	부합	42.1	부합	(17.01)	분기 매출 6.74억 달러(+26%)·비GAAP EPS 12.18달러(+42%)로 호실적을 기록, Platform ARR이 처음으로 Non-Platform ARR을 상회한 점이 특징적 마일스톤.
	고대디	6.6	부합	29.8	상회	(16.70)	AI 에이전트 플랫폼 Airo의 연 환산 예약 매출이 전분기 1,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5배 급증한 점이 특징. 다만 전통형 상품(A&C 부문) 예약이 AI 전환 과정에서 둔화 중은 제약 요인
	가민	11.4	부합	29.5	상회	16.23	2분기 매출 11% 성장으로 사상 최대 실적 경신, 피트니스(+25%)·마린(+14%) 부문이 주도하며 영업이익률도 30.4%(+440bp)로 확대. 상반기 호실적에 힘입어 2026년 매출 가이드언스를 80.5억 달러, EPS를 10달러로 상향(기존 79억 달러·9.35달러).
	램 리서치	30.0	부합	36.8	상회	17.98	분기 매출 +15% QoQ, +30% YoY 증가하며 4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 AI발 웨이퍼팹 장비 수요 확대 흐름을 반영하여 분기 가이드언스도 상향
	모노리식 파워 시스템스	47.6	상회	54.4	상회	8.35	2분기 매출 9.81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22%, 전년 대비 48%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부문이 45% 성장하며 전 시장이 순차 성장. 이번 쿨에서는 매출 성장 요인만 상세히 다뤄지고 이익률·EPS 등 구체적 가이드언스는 별도 문서에 게재되어 확인되지 않으며, 자사주 매입 한도를 10억 달러로 5억 달러 확대한 점이 특징.

	마이크로-소프트	17.7	부합	29.9	상회	15.51	Azure(+41%)와 클라우드(+27%) 성장이 실적을 견인, FY26 연간 매출도 3,310억 달러(+18%)를 기록. 1분기 매출 가이드는 898.5~909.5억 달러(+16~17%), Intelligent Cloud 부문은 Azure 약 45% 성장을 반영해 33~34% 성장 전망이며, FY27 자본지출은 유형자산 내용 연수 변경(15→25년) 효과를 반영해 약 1,75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
	NXP 반도체	19.5	부합	32.7	부합	(7.00)	2분기 매출 19% 성장(35억 달러)·영업이익률 35%·EPS 3.61 달러 모두 가이드를 상회, 데이터센터·자동차 제어 반도체 수요 확대가 견인. 3분기 매출 가이드수도 37.5억 달러(전년 대비 21% 성장)로 견조하며, 데이터센터向 매출이 2026년 5억 달러 초과로 확대될 전망인 점이 특징.
	퀄컴	-4.0	부합	-20.2	부합	(2.62)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매출/EPS 실적 발표. 자동차 부문이 61% 성장하며 역대 최고 분기를 견인. 메모리發 원가 급등과 애플向 매출 비중 축소(기존 20% 전망에서 하향)가 겹치며 QCT 마진은 단기 압박 전망. 데이터센터 신규 진출과 2029년 비휴대폰 매출 400억 달러 목표 제시.
	스카이웍스 솔루션	-3.1	부합	-18.8	부합	(5.40)	데이터센터·자동차·Wi-Fi 등 부문이 8% 성장하며 모바일 대비 다각화 효과 입증. Qorvo 합병은 중국 규제 3단계까지 진행되며 연내 종결을 낙관,
커뮤니케이션	메타 플랫폼스	28.0	부합	-13.4	하회	(7.95)	광고 매출이 27% 성장하며 실적을 견인, 다만 법률충당금(24억 달러)·구조조정비(12억 달러) 반영으로 GAAP 영업이익은 -8% 감소. 3분기 매출 가이드는 610~640억 달러로 제시했으며, 2026년 연간 총비용 가이드를 1,650~1,690억 달러로 상향하고 자본지출 가이드수도 1,300~1,450억 달러로 상향.
소재	뉴코어	23.0	부합	86.2	상회	7.17	3개 사업부문 실적 모두 개선되며 철강 부문 세전 이익이 전분기 대비 +35% 성장을 주도. 강판 출하량 사상 최대 710만 톤 기록에 232조/반덤핑 관세로 수입산 철강 -25% 감소한 우호적 환경이 뒷받침. 3분기는 철강·철강 제품 모두 실적 개선 예상하며 하반기 출하 성장률은 기존 가이드(5~10%) 상단에 근접 전망.
	서원-윌리엄스	7.5	부합	9.5	상회	8.25	2분기 연결 매출은 한 자릿수 후반 성장(Suvinil 인수 기여 포함), 산업재 부문(General Industrial)이 중장비 수요 호조로 긍정적이었고, 소비자브랜드 부문은 Suvinil 인수 효과로 매출이 크게 증가. 다만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하반기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가격 대응이 지속 필요
	인터내셔널 페이퍼	-11.3	부합	-80.0	상회	1.20	2분기 북미 박스 물량이 전년 대비 1.7% 성장하며 업계를 상회했으나, 수출사업 축소 및 EMEA 수요 약세로 전사 매출은 감소, 자유현금흐름도 대규모 정비보수로 -700만 달러 기록. 중동 분쟁발 물류비 상승으로 연간 조정 EBITDA 가이드 상단을 축소
	린데	9.3	부합	10.0	부합	(5.95)	2분기 매출 93억 달러(+9%)·EPS 4.50달러(+10%)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으나, 미국 자택 건강관리 사업 부진으로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약 30bp 하락. 전자소재(반도체 펌) 신규 수주로 판매계약 백로그가 81억 달러(+10억 달러)로 확대
	라이온델바젤 인더스트리스	19.8	부합	593.5	상회	2.71	중동 분쟁발 석유화학 공급망 붕괴(중동 폴리에틸렌 생산능력 약 20~25% 손상)로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으며 2분기 EBITDA 21억 달러(전분기 대비 3배 이상)·EPS 4.30달러를 기록, 유럽 자산 4곳 매각 완료 및 Brindisi 공장 폐쇄 추진 등 포트폴리오 재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8월 폴리에틸렌 파운드당 10센트 추가 가격인상을 발표
	마틴 마리에타 머티리얼즈	7.5	부합	-7.9	상회	(5.21)	2분기 핵심 골재사업 매출 15억 달러(+16%)·조정 EBITDA 사상 최대치를 기록, 인프라 및 중대형 비주거 건설 수요 확대가 성장을 견인.

	스머핏 웨스트락	1.1	부합	흑전	하회	(5.00)	중동 분쟁발 운임·연료비 급등이 전 지역 부담으로 작용, 북미는 볼륨보다 가치우선 전략으로 물량이 -4.8% 감소. 이에 따라 2026년 연간 조정 EBITDA 가이드언스를 49~51억 달러로 하향했으나 컨테이너보드 가격 인상은 이미 시행해 하반기부터 점진 회수 예상.
산업재	캐리어	3.9	상회	-6.5	상회	(8.90)	2분기 수주 +40%(상업용 HVAC +65%, 데이터센터 수주는 전년 대비 4배), 수주 잔고 80억 달러 이상(+40% YoY)의 견조한 수요를 원동력으로 매출·영업이익·EPS 가이드언스를 모두 상향 조정. 영업이익과 데이터센터 매출 전망 상향하였으나 NORESKO 매각에 따른 매출 역풍(약 1.25억 달러)과 신규 미국 공장 초기비용이 하반기 수익성에 부담.
	보잉	8.0	부합	적지	하회	4.76	전 부문 고른 성장을 기록했으며, 상업용 항공기 인도량은 171대로 201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다만 EPS는 전년 대비로는 개선이나 여전히 -\$0.76 손실인 상태. VC-25B(대통령전용기) 프로그램 관련 2.8억 달러 손실 인식이 국방부문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 중. FAA가 737 MAX·787 감항 증명서 발급을 재개하며 인증 리스크는 완화됐고, 자유 현금흐름은 6.31억 달러로 예상보다 양호.
	유나이티드 파 슬 서비스	7.5	부합	13.5	상회	(6.57)	아마존 물량 축소 및 네트워크 재편을 계획대로 완료하며 견조한 실적을 기록, 미국 국내 부문 영업이익은 +20% 이상 급증. 다만 인력 감축 프로그램(Driver Choice Program) 관련 일회성 비용(주당 \$1.05)이 실적에 반영됐으며, 국제부문 영업이익은 환율·물동량 영향으로 소폭 감소(-5,900만 달러)
	엠토어	19.8	상회	34.8	상회	19.32	2분기 매출, 영업이익률, EPS 전 부문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 데이터센터向 전기·기계건설 수요 확대가 성장을 견인. 잔여계약잔고(RPO)가 171.4억 달러(+44%)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또한 5건의 전기업체 볼트온 인수를 통해 데이터센터 시장 확장 지속
	이튼	21.4	부합	6.8	부합	7.32	미주 전기부문이 18% 성장(데이터센터向 +65%)하며 실적을 견인. 강력한 상반기 실적에 힘입어 연간 오가닉 매출/조정 EPS 상향. 미국 데이터센터 백로그가 307GW(2025년 기준 15년치)로 확대
	제네락 홀딩스	10.6	부합	76.4	상회	(0.21)	2분기 매출 11% 성장, C&I 부문이 데이터센터向 매출 확대(하이퍼스케일 공급계약 2건, 백로그 16억 달러)로 29% 급증하며 실적을 주도. 반면 주거용 부문은 파워아웃티지 감소로 가이드언스 소폭 하향, 두 효과가 상쇄되며 전사 매출 가이드언스는 유지.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스	10.9	상회	36.5	상회	14.09	2분기 매출 34억 달러(+10.9%)·EPS 5.27달러(전년 3.86달러)로 조선 부문이 4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 향후 12개월 내 함선 5척 인도 계획에 힘입어 연간 조선 매출 가이드언스를 102~104억 달러로 상향(마진 6~6.5%). 다만 자유현금흐름은 3분기 약 1억 달러에 그치고 4분기 대규모 현금창출이 필요한 구조이며, 잠수함(VCS Block VI·컬럼비아급) 계약 확정과 미해군 예산안 통과 여부가 향후 관건인 점이 특징.
	L3해리스 테크놀로지스	8.4	부합	12.6	상회	(8.61)	2분기 매출 8% 성장·영업이익률 16%로 확대. THAAD·PAC-3 7년 생산계약(약 120억 달러) 체결로 미사일 사업 성장 가시성이 확대된 점이 특징.
	퀀타 서비스	41.1	상회	71.0	상회	17.26	2분기 매출·순이익·조정 EPS 전 지표에서 역대급 실적, 데이터센터·전력망 인프라 수요가 성장을 견인하며 잔여수주 잔고도 53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 강력한 상반기 실적과 4건의 볼트온 인수(약 12.4억 달러)에 힘입어 연간 가이드언스 대폭 상향.
	버티브 홀딩스	24.1	부합	60.0	상회	(17.26)	2분기 매출 24% 급증(오가닉 18%)·영업이익률 22.6%·EPS 60% 성장, 미주·APAC 두 자릿수 성장과 EMEA 플러스 전환이 뒷받침. 일부 프로젝트 매출인식 지연은 하반기 해소 전망.

경기소비재	로얄 캐리비안 그룹	6.5	부합	-3.9	상회	5.72	건조한 수요와 비용 절감이 실적을 뒷받침, 다만 중동 지역 지정학적 갈등 장기화로 유럽 항로 예약이 영향을 받아 연간 순수익률 가이던스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침. 4분기부터는 우호적 비교 기저로 수익률 반등 예상되며, 2027년 예약 추세는 지정학 영향 항로 포함해서도 양호.
	포드 모터	-3.8	부합	13.5	상회	2.14	건조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BlueOval SK 배터리 합작사 매각 관련 일회성 상각(36억 달러) 영향으로 GAAP 기준 순손실 13억 달러 기록. Ford Blue 부문은 가격결정력 강화로 EBIT +72% 급증. Model e 부문은 손실 -31% 개선되며 3분기 연속 흑자 전환 진전을 보였으나, Novelis 알루미늄 공급망 차질로 Ford Pro 부문 매출·이익이 일시적 타격.
	힐튼 월드와이드	6.5	부합	4.1	부합	(2.54)	건조한 여행 수요 회복이 실적을 뒷받침. 다만 중동 지역 갈등으로 해당 지역 RevPAR -30% 급감했고, 연간 전망도 -8~-10%대로 하향. 중국은 정부 규제로 단체여행 위축 지속.
	아마존	19.6	부합	242.3	상회	15.32	2분기 매출 2,006억 달러(+20%)·영업이익 275억 달러(+43%)로 건조한 실적을 기록, AWS 매출이 36.7%(5분기 연속 가속)로 급성장하며 연 환산 매출렌레이트 1,690억 달러를 달성. 2026년 현금 자본지출 전망을 기존 2,000억 달러에서 2,200억 달러로 상향. AI·칩 사업(Trainium) 매출렌레이트가 각각 250억 달러를 돌파하며 3자리수 성장률을 기록.
	빌더스 퍼스트소스	-8.8	부합	-50.8	하회	(2.58)	주택시장 약세로 순매출, EPS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 신규 주택 착공 부진이 이어지며 연간 가이던스를 매출·조정 EBITDA 하향.
	치폴레 멕시코 그릴	9.3	부합	0.0	부합	12.50	건조한 매출을 기록했으나 매장수익률은 220bp 하락하고 조정 EPS는 전년과 동일한 0.33달러에 그쳐 수익성은 부진. 최근 몇 주간 소비자 신중세 확산으로 트렌드가 다소 둔화되며 연간 동일점포매출 가이던스를 낮은 한 자리 수 성장으로 제시
	MGM 리조트	1.0	부합	-25.3	상회	(0.37)	라스베가스 스트립 2개분기 연속 매출 성장, 지역사업 사상 최대 동일점포 매출, MGM Digital 매출 20% 성장 등 전 부문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Macau는 월드컵 여파로 6월 일시 둔화되었으나 7월 반등.
	노르웨이저안 크루즈 라인	4.9	부합	-5.9	상회	(9.78)	2분기 순수율 -2.6%로 가이던스보다 양호했고 비용 절감 노력으로 조정 EBITDA가 가이던스를 상회했으나, 하반기 실적은 부진할 전망. 마케팅·수요 회복 지연으로 연간 순수율 가이던스를 하향(약 -5%)하고 조정 EBITDA·EPS 가이던스도 각각 25억 달러·1.50달러로 하향 조정했으며, 2027년 상반기까지 수요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우려.
건강관리	스타벅스	-1.4	부합	70.0	상회	1.64	중국 소매사업 조인트벤처 전환 영향에도 글로벌 동일점포매출 7.9% 성장·영업이익률 430bp 확대(14.4%)로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견인, EPS는 전년 대비 70% 급증한 0.85달러
	유니버설 헬스 서비스	8.3	부합	11.8	부합	4.34	2분기 조정 EPS \$5.98(+12% YoY), 조정 EBITDA-NCI 6.78억 달러(+5%)로 건조하나, 일회성 플로리다 DPP 편익 제외 시 배상책임보험 준비금 증액·텍사스 행동건강병원 재인증 손실·Cedar Hill 신설병원 부진 등 세 요인(합계 약 6,300만 달러)이 내부 기대치를 하회.
	센틴	9.9	상회	흑전	상회	(0.27)	2분기 조정 EPS \$2.51로 예상을 크게 상회했으며, 마켓플레이스 사업 리스크조정 포지셔닝 개선이 주도. 다만 메디케이드 회원 수는 연말 기준 전년 대비 -8~9% 감소 전망(기존 -6%)으로 확대됐으며, OB3 법안 시행으로 회원 이탈 리스크가 지속 우려 요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쿼	5.7	상회	39.7	상회	2.79	2분기 매출 130억 달러(+5%)로 성장 포트폴리오가 14% 성장하며 레거시 포트폴리오 감소분을 상쇄. iberdomide·Camzyos 등 주요 PDUFA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어 기대감. 다만 milvexian 뇌졸중 예방 연구 및 Cobenfy 알츠하이머 정신병 프로그램 데이터 발표 시점이 2027년으로 지연.

	GE 헬스케어	5.9	부합	6.6	상회	12.15	2분기 매출 53억 달러·수주 11.1% 증가(스핀오프 이후 최고치)로 기대치에 부합, 다만 Patient Care Solutions 부문은 매출 -13.5%·세그먼트 적자를 기록하며 공급 차질로 부진, 매각 등 전략적 옵션 검토 중.
	휴매나	26.2	부합	21.4	부합	(5.99)	2분기 통합 운영 비율이 전년 대비 120bp 개선되며 연간 약 150bp 개선 목표 유지. 2027년 MA 입찰을 통해 2028년 세전 마진 3% 이상 목표 진전을 기대한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 매출·EPS 수치는 이번 발표에 제시되지 않음.
	모더나	2.1	상회	적지	부합	(5.35)	계절적 비수기인 2분기에 가이드언스 상단을 초과하는 매출 기록에도 주당 -1.97달러 순손실을 기록. 다만 현금비용을 전년 대비 10% 절감하며 재무 규율을 강화. 2026년 연간 매출성장 가이드언스(최대 10%)를 유지했으며, 계절독감백신 mRNA-1010이 미FDA 자문위(VRBAPAC) 만장일치 권고를 획득해 8월 5일 PDUFA 심사 결과를 앞두고 있음.
필수소비재	코카 콜라	6.0	부합	11.5	부합	5.00	오가닉 매출 +6%·판매량 +5% 견조한 성장을 기록, 축구월드컵 통합 마케팅과 우호적 환율이 실적 상승을 이끌며 조정 EPS 상승(+11%)으로 마진도 확대. 다만 중국·일부 라틴아메리카 시장 소비심리 위축과 IRS 소송 불확실성이 잔존 리스크이며, 4분기는 영업일수 감소(-6일) 효과 유의 필요.
	몬델리즈	4.1	부합	-2.7	부합	4.02	물량 성장을 동반한 견조한 실적 기록. 신흥시장의 유통 확대(인도 매장 10만개 추가, 브라질 100만개 도달)와 북미 밸류 채널 혁신 제품(Ritz Drizzled 등) 판매 호조가 성장을 견인. 다만 중동 갈등에 따른 추가 비용과 코코아 가격 페이징 영향으로 3분기와 4분기 간 이익 배분이 4분기에 더 치우칠 전망이며, 유럽은 폭염 영향으로 물량 회복 시점에 유의 필요.
	번지 글로벌	88.3	상회	52.7	부합	(8.17)	2분기 조정 EPS 대폭 개선, 대두·소프트시드 가공 부문이 남북미 전역에서 실적을 주도. 다만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4분기 불확실성이 특히 크다고 언급.
	허쉬	6.6	상회	57.0	상회	(3.63)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연간 가이드언스를 소폭 상향. 3분기부터는 전년 Reese's·Oreo 혁신 제품에 대한 높은 기저 효과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나 신제품 및 헬러윈 프로모션으로 하반기 반등을 기대.
	프록터 앤 갬블	1.5	부합	-3.4	부합	(1.87)	오가닉 매출은 소폭 성장에 그쳤고, 핵심 EPS는 전년 대비 -3% 감소. 원자재·에너지·운송비 급등이 부담 요인. 중동 분쟁발 비용으로 다음 분기 EPS는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 전망.
	얌 브랜드	12.2	부합	12.5	부합	3.34	피자헛 제외 매출 7% 성장·동일점포 매출 4% 성장으로 견조했으나, 7월 중순 미국 식품안전 이슈로 Taco Bell 미국 동일점 포매출이 7월 누적 기준 -2%로 급락. 이슈 발생 직후 최대 타격을 받았으나 이후 매출 감소폭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며, 피자헛을 27억 달러에 매각하는 계약(8월 완료 예정)을 통해 KFC·Taco Bell·Habit 중심 사업구조로 전환 중
금융	페이팔	4.8	부합	-1.4	상회	4.01	2Venmo·신용·Braintree 사업 성장이 실적을 뒷받침. EPS 가이드언스를 \$5.38로 상향 조정. 다만 비거래 영업비용은 플랫폼·클라우드 현대화 투자 확대에 증가했고(3분기까지 지속 전망), 브랜드 체크아웃 거래액 성장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
	비자	14.4	부합	11.4	부합	0.58	분기 순매출과 EPS 모두 10% 초반대 성장하며 예상을 상회. 분기 결제액이 사상 최초로 4조 달러를 돌파. 소비자·상업 결제와 자금이동 솔루션 전반의 수주 확대가 실적을 견인.
	아레스 매니지먼트	5.8	상회	25.2	부합	3.20	2분기 AUM 6,710억 달러(+17%)·수수료 수취자산 4,100억 달러(+17%)로 사상 최대 분기 자금 모집(360억 달러)을 기록, 수수료관련이익(FRE)도 4.91억 달러(+20%)로 급증. 미배치 대기자금 1,700억 달러 보유.
	코인베이스	-18.5	하회	적전	하회	(10.59)	3분기 연속 순이익 적자 기록. 시장 현물 거래량이 25% 감소하고 변동성도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영향. 다만 구독/서비스 매출이 순매출의 48% 차지해 거래 매출 감소를 일부 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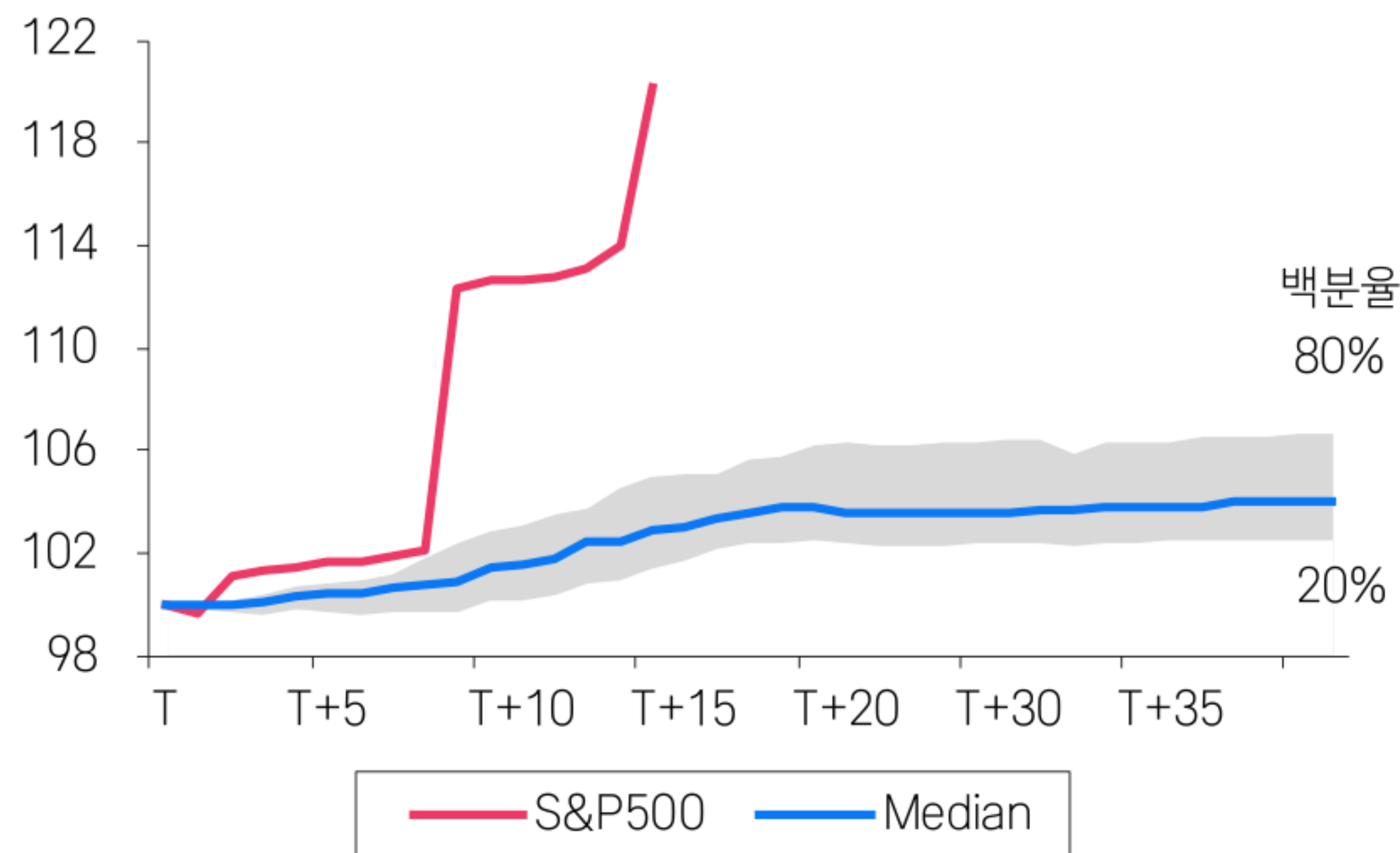
	로빈후드	32.3	부합	47.6	상회	(3.61)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순예치금도 220억 달러(+28%)로 사상 최대치 견인. Trump Accounts 출시·Robinhood Chain(암호화폐 블록체인) 및 주식 토큰 등 신사업 확장.
	마스터카드	14.1	부합	21.4	상회	2.49	중동 분쟁 영향이 예상보다 완화되고 베네수엘라발 국경간 지출이 양호해 견조한 실적 기록. BVNK(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인수를 3분기 완료할 예정.
에너지	쉐브론	56.3	상회	242.4	상회	2.35	미국 업스트림 생산량이 사상 최대(약 210만boe/d)를 달성하며 구조적 비용절감 목표(연 30억 달러)를 6개월 앞당겨 달성. Hess 인수 시너지도 목표 대비 50% 초과 달성(15억 달러, 6개월 조기)했으며, Microsoft와 20년 전력구매계약(2.67GW, 데이터센터向)을 체결해 Project Kilby로 전력사업 신규 진출을 추진 중.
	발레로 에너지	48.8	상회	450.0	상회	3.45	2분기 순이익 대폭 개선, 정제 부문 영업이익이 45억 달러(전년 13억 달러)로 급증하며 재생디젤·에탄올 부문도 흑자 전환. 낮은 글로벌 제품 재고와 제한적 정제능력이 우호적 환경을 뒷받침.
	엑손 모빌	42.3	상회	114.6	부합	(0.97)	중동 분쟁으로 업스트림 생산량 약 10%가 일시 손실됐음에도 화학 제품 마진이 전분기 대비 약 180% 급증하며 실적을 방어.
유틸리티	도미니언 에너지	17.6	상회	5.3	상회	(0.80)	데이터센터 계약용량이 530억 GW 이상으로 확대(전자서비스 계약 기준 약 120억 GW)된 가운데, Coastal Virginia 해상풍력(CVOW) 프로젝트는 81% 완공됐으나 최종 터빈 설치 시점이 6개월 지연되고 공사비도 약 2% 증가한 116.5억 달러로 조정
	퍼스트 솔라	-3.7	부합	23.3	상회	2.44	연간 가이드نس 유지, 백로그 45.1GW(거래 가치 136억 달러)를 기반으로 안정적 매출 가시성을 확보. 다만 Section 232 폴리실리콘 관세 조사 등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신규 계약 체결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 중.
부동산	아메리칸 타워	4.7	부합	138.5	상회	2.85	CoreSite 데이터센터 사업의 기록적 리스 실적과 글로벌 타워 포트폴리오의 견조한 임대수요를 바탕으로 2026년 가이드نس를 올해 두 번째로 상향 조정. 데이터센터 매출 성장률 전망도 13%→15%로 확대.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 재조달 역풍이 AFFO 성장률에 기존 100bp에서 150bp로 확대 반영.
	인비테이션 홈즈	9.7	부합	60.9	상회	(1.46)	평균 점유율 97% 이상·신규임대료 성장률 6개월 연속 가속화가 실적을 뒷받침. 상반기 호실적에 힘입어 연간 core FFO·AFFO 가이드نس를 각각 1.95달러·1.65달러로 소폭 상향했으며,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된 자사주 매입(6억 달러 누적)과 주택 매각을 통한 자본 재배치.

참고: *실제 실적이 컨센서스 ±5%: 부합, +5% 초과: 상회, -5% 미만: 하회, ** 실적 발표 전일 기준,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경우 주가 반응은 실적 발표일로부터 익일
자료: Factset, 삼성증권

S&P 500 업종별 2분기 실적(EPS) 전망 추이

S&P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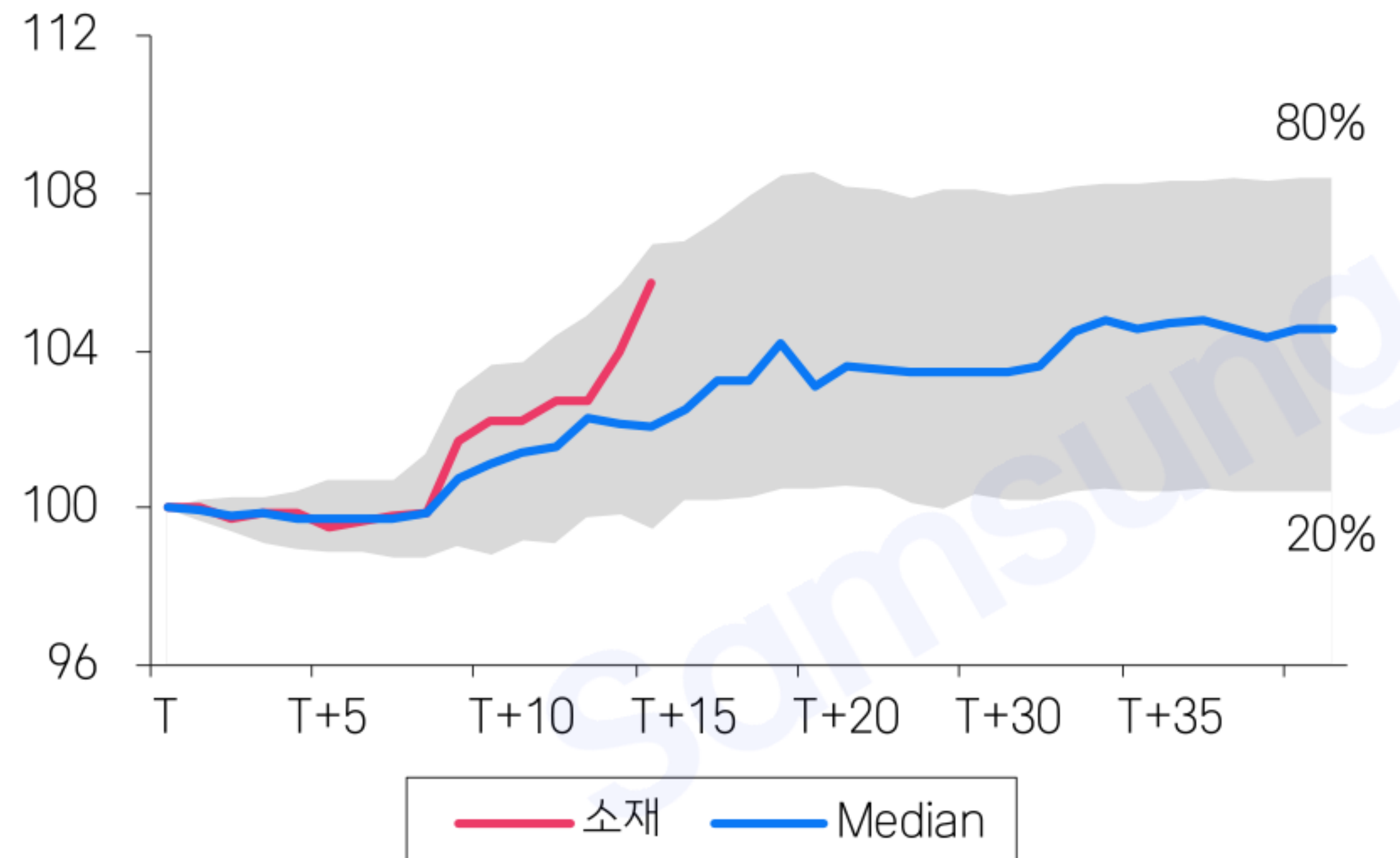
(지수화: 분기 실적시즌 초=0)



참고: `10년 이후 Median, 백분율 20,80%, T = 매 분기 실적 시즌 초반, 7월 31일 기준
자료: Factset, 삼성증권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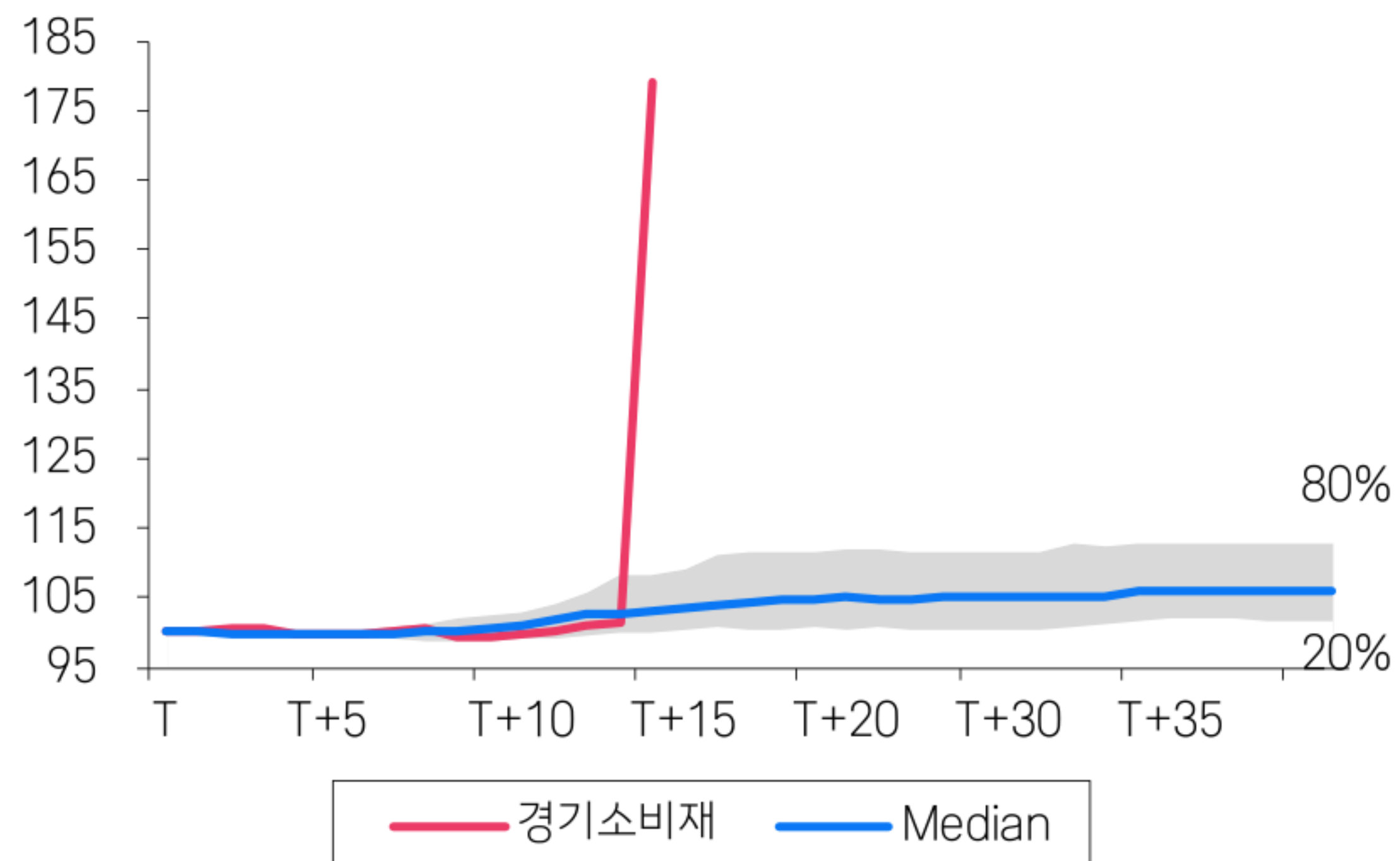
(지수화: 분기 실적시즌 초=0)



참고: `10년 이후 Median, 백분율 20,80%, T = 매 분기 실적 시즌 초반, 7월 31일 기준
자료: Factset, 삼성증권

경기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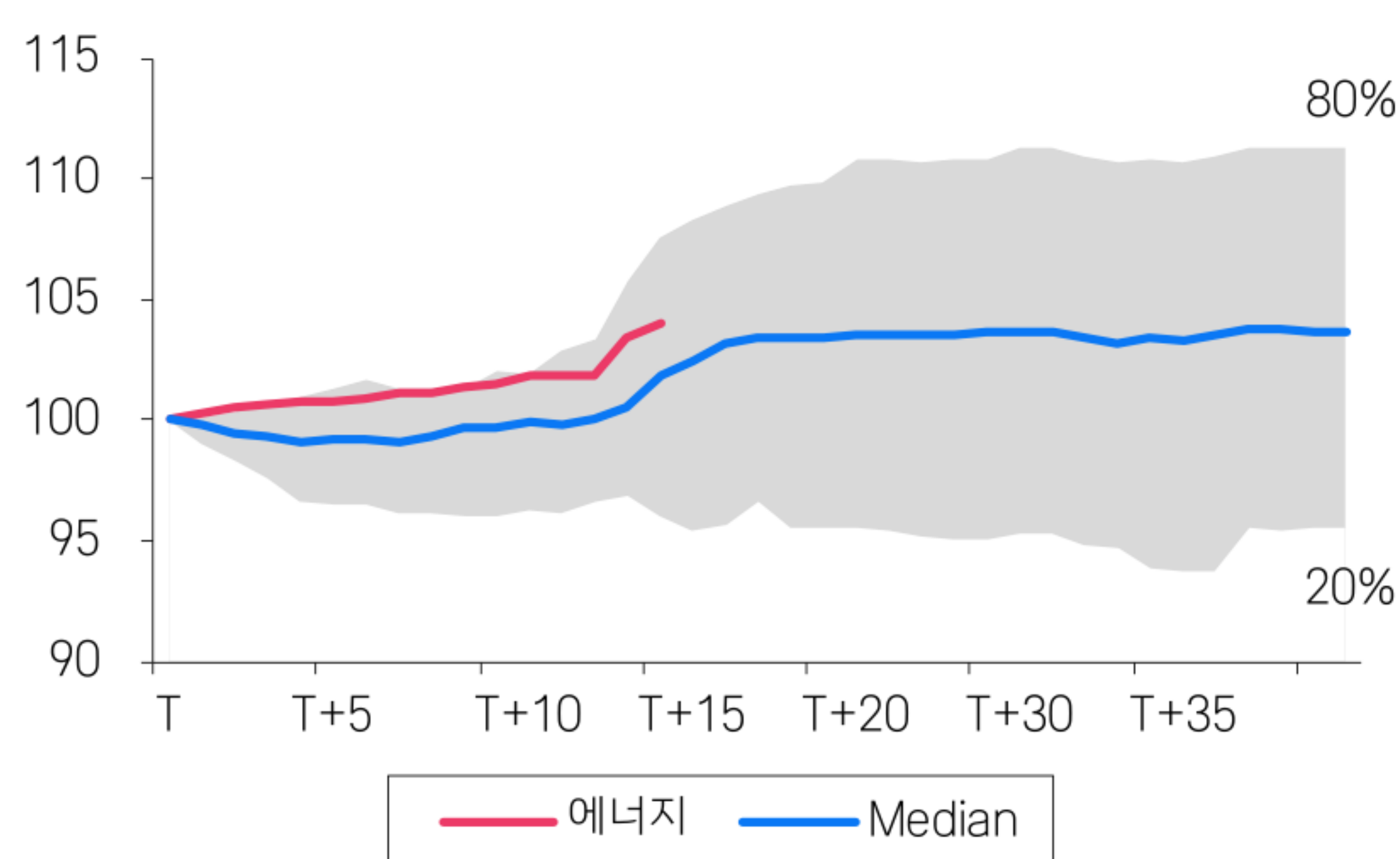
(지수화: 분기 실적시즌 초=0)



참고: `10년 이후 Median, 백분율 20,80%, T = 매 분기 실적 시즌 초반, 7월 31일 기준
자료: Factset, 삼성증권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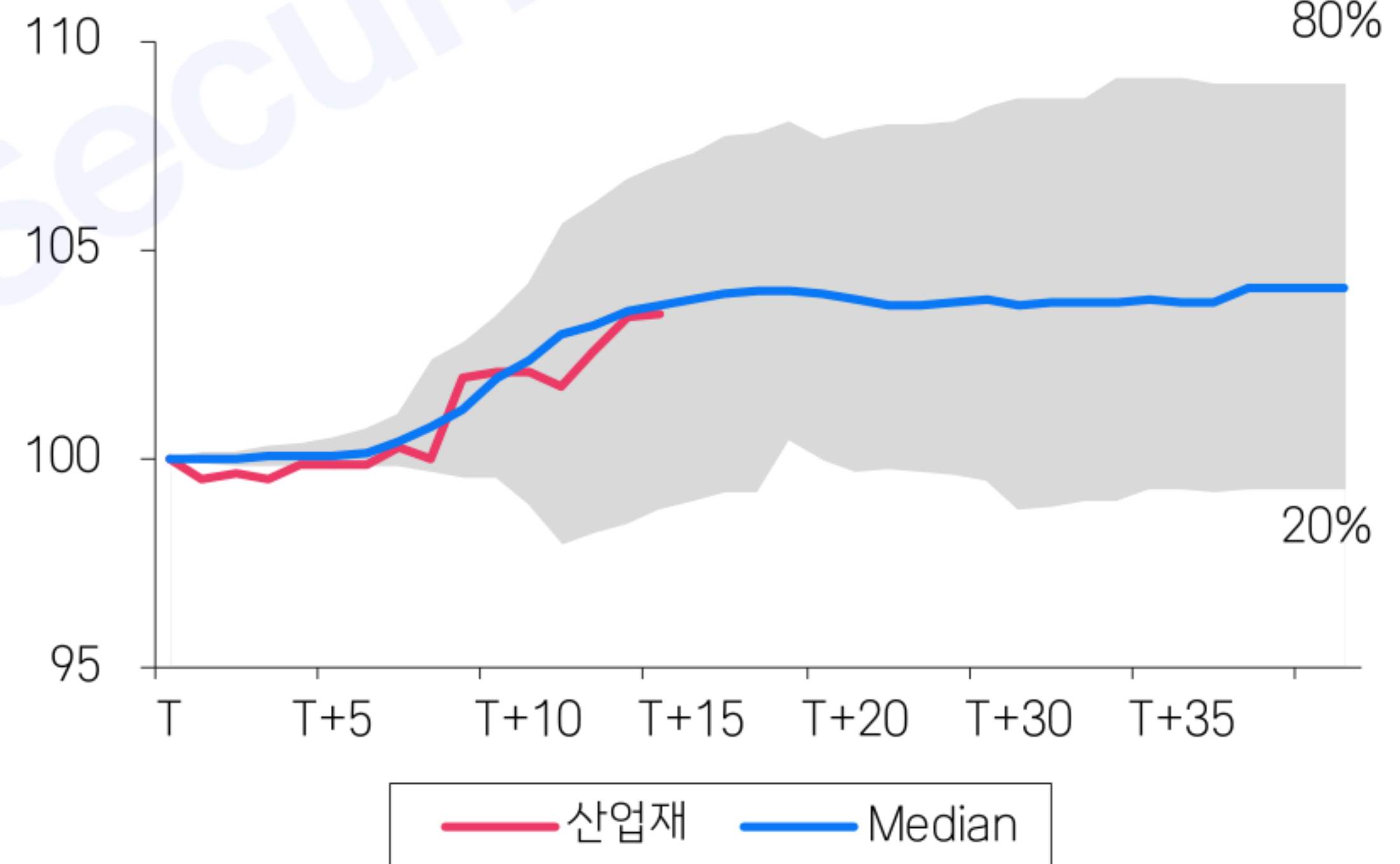
(지수화: 분기 실적시즌 초=0)



참고: `10년 이후 Median, 백분율 20,80%, T = 매 분기 실적 시즌 초반, 7월 31일 기준
자료: Factset, 삼성증권

산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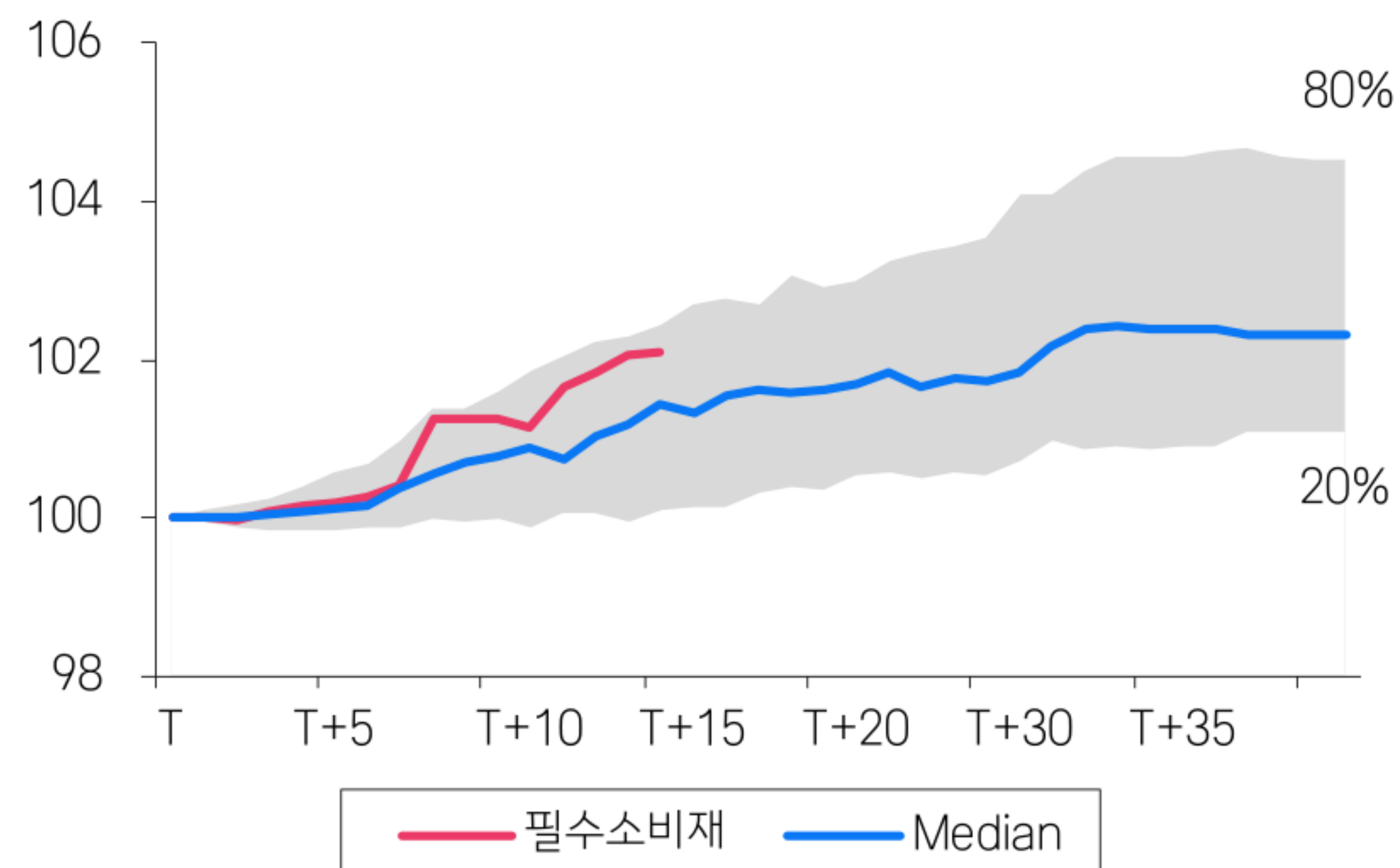
(지수화: 분기 실적시즌 초=0)



참고: `10년 이후 Median, 백분율 20,80%, T = 매 분기 실적 시즌 초반, 7월 31일 기준
자료: Factset, 삼성증권

필수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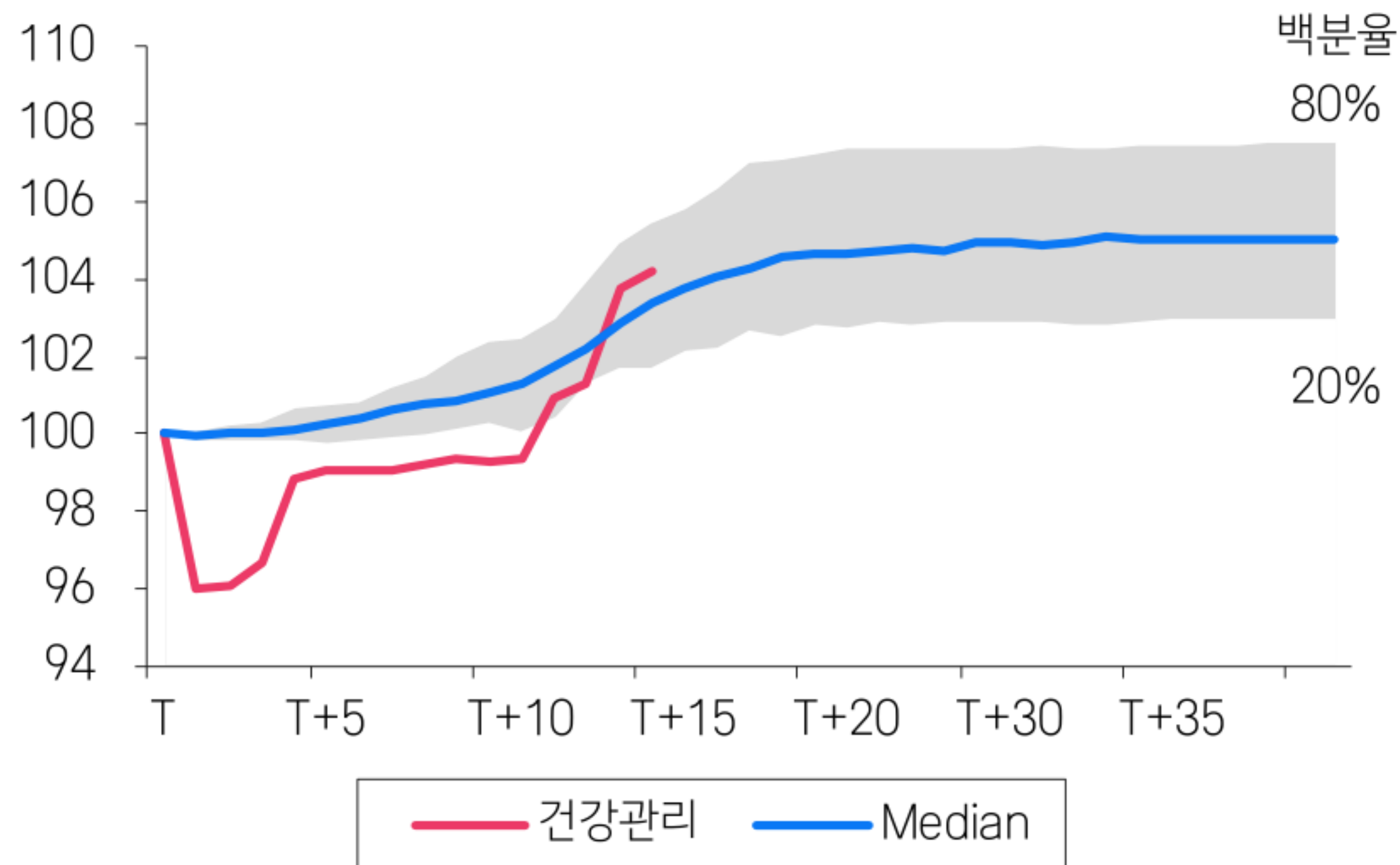
(지수화: 분기 실적시즌 초=0)



참고: `10년 이후 Median, 백분율 20,80%, T = 매 분기 실적 시즌 초반, 7월 31일 기준
자료: Factset, 삼성증권

건강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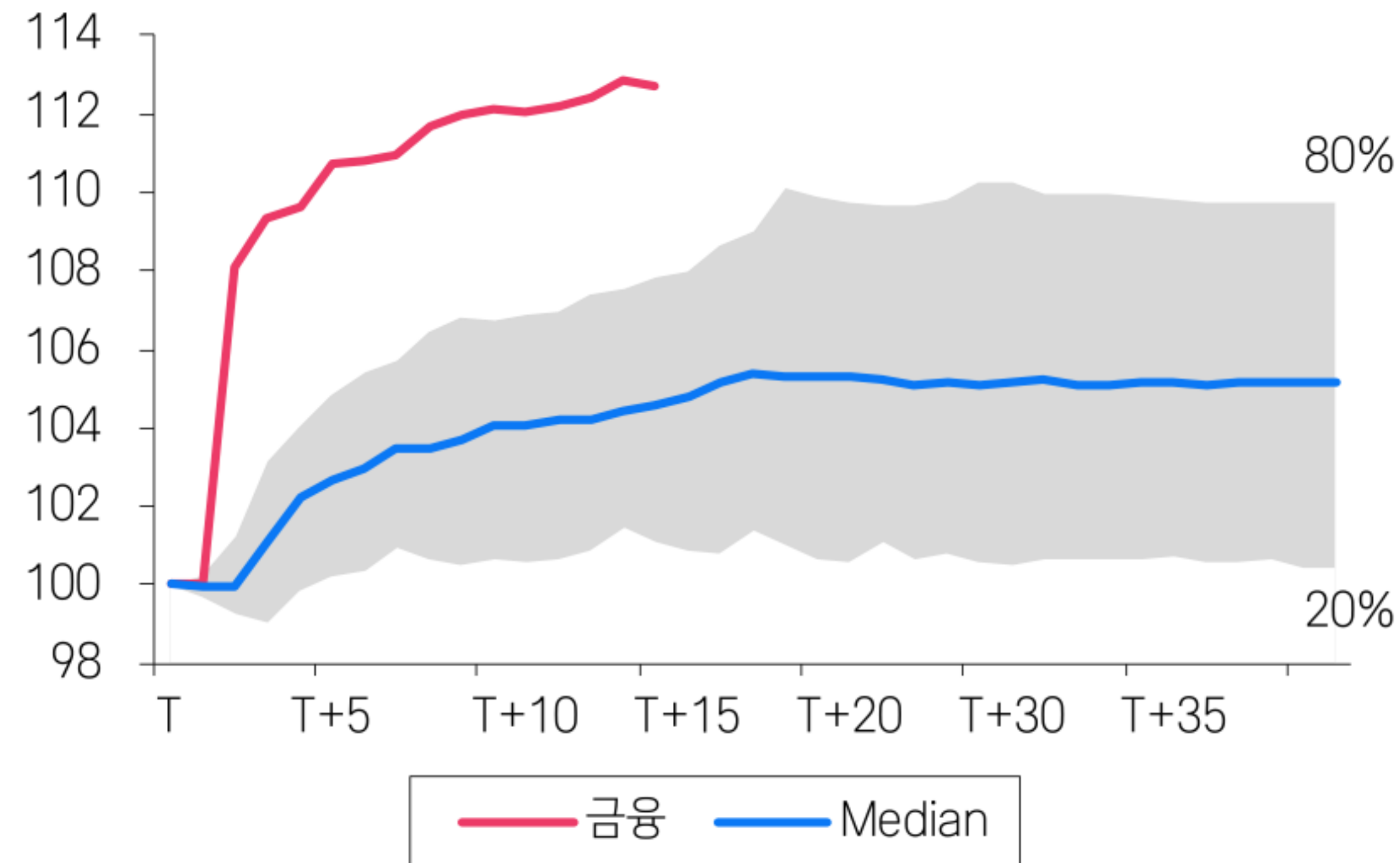
(지수화: 분기 실적시즌 초=0)



참고: `10년 이후 Median, 백분율 20,80%, T= 매 분기 실적 시즌 초반, 7월 31일 기준
자료: Factset, 삼성증권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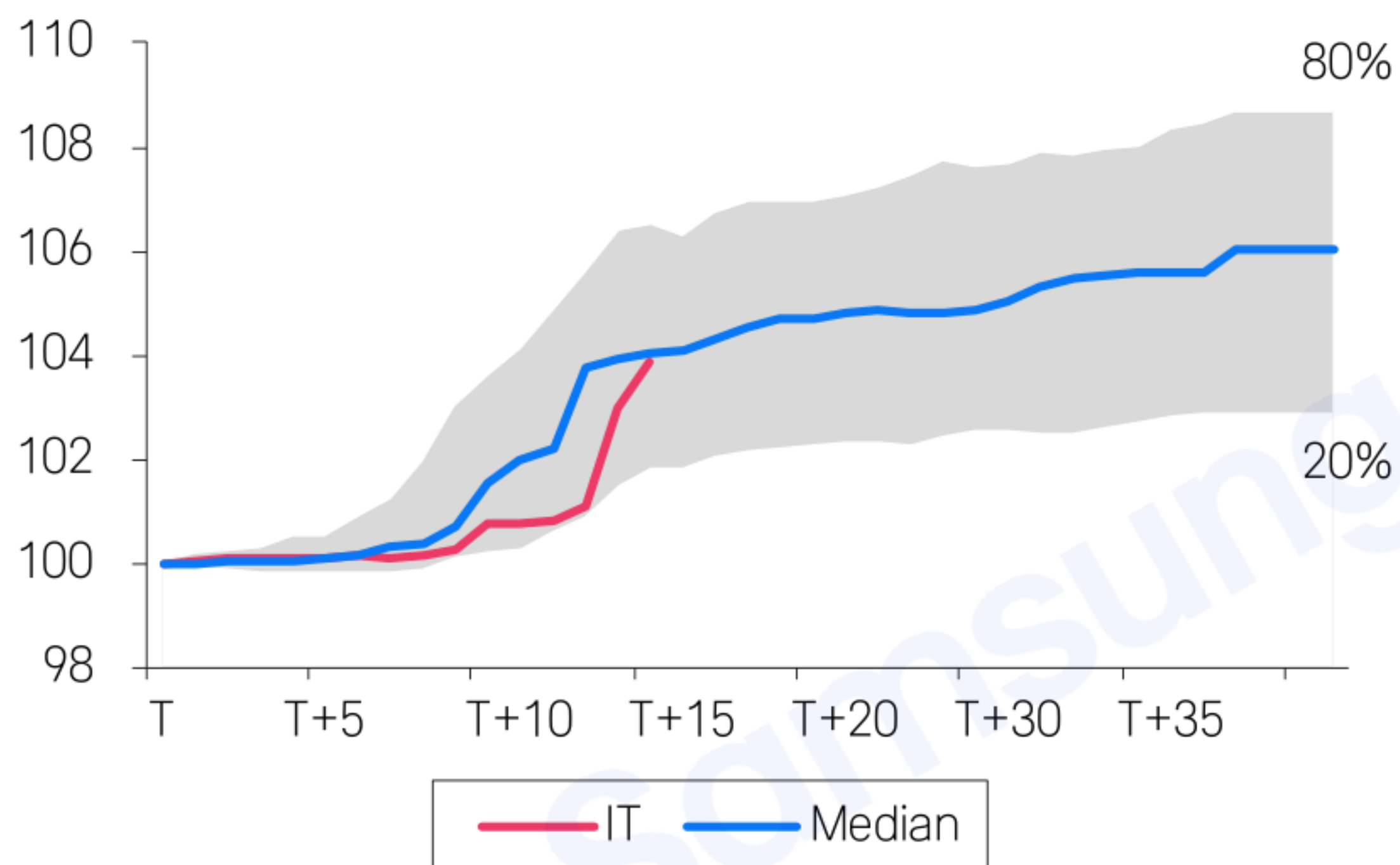
(지수화: 분기 실적시즌 초=0)



참고: `10년 이후 Median, 백분율 20,80%, T= 매 분기 실적 시즌 초반, 7월 31일 기준
자료: Factset, 삼성증권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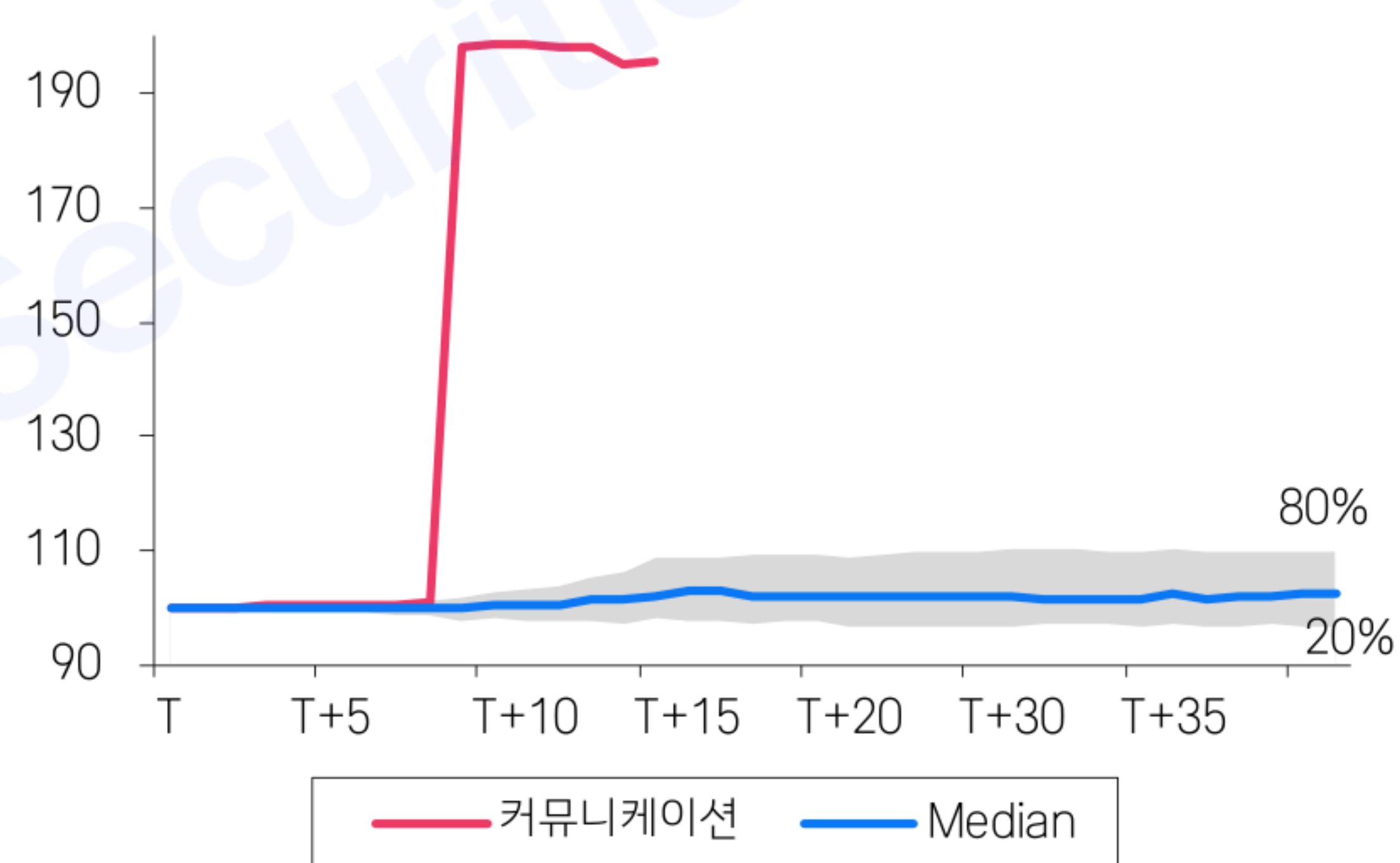
(지수화: 분기 실적시즌 초=0)



참고: `10년 이후 Median, 백분율 20,80%, T= 매 분기 실적 시즌 초반, 7월 31일 기준
자료: Factset, 삼성증권

커뮤니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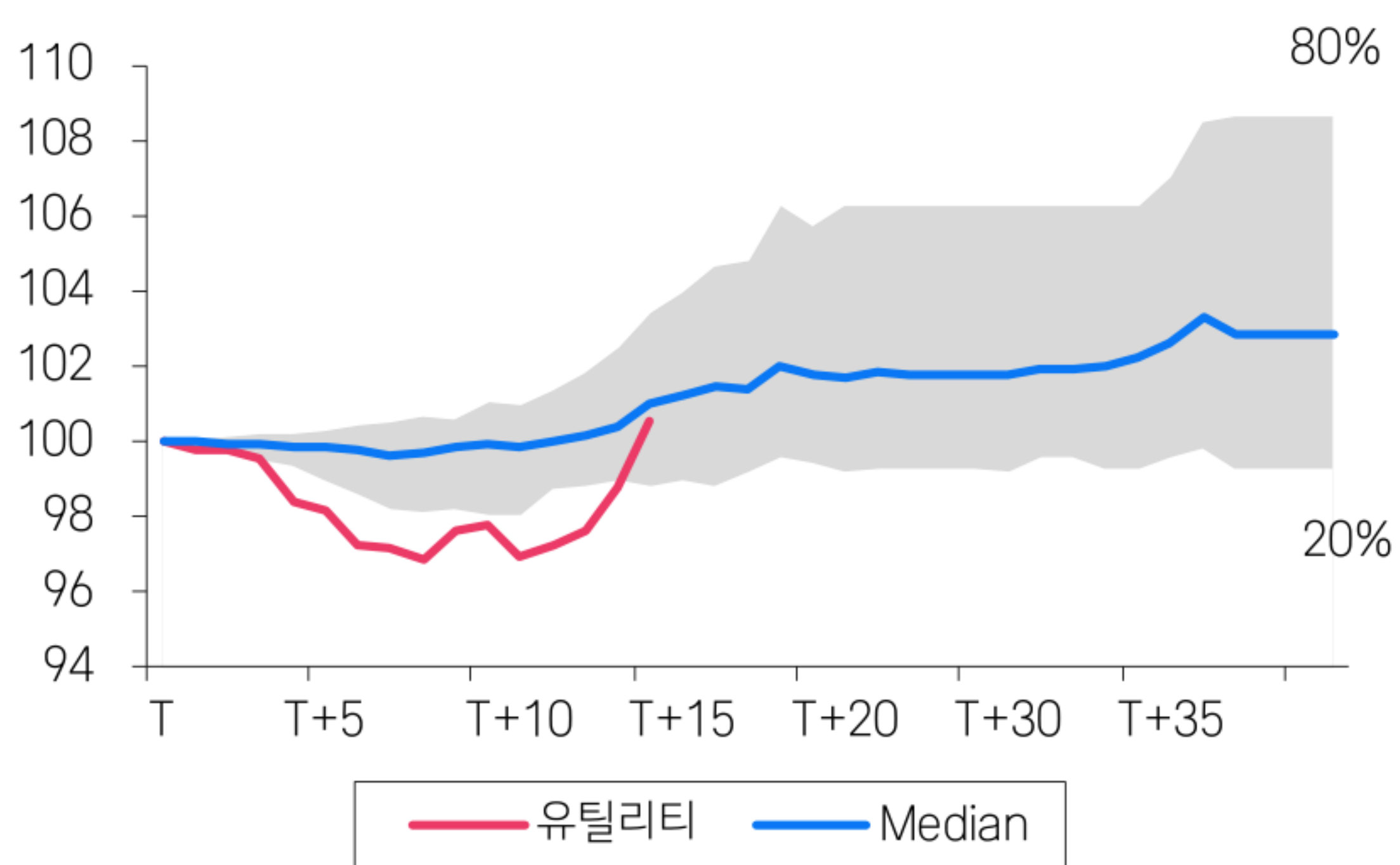
(지수화: 분기 실적시즌 초=0)



참고: `10년 이후 Median, 백분율 20,80%, T= 매 분기 실적 시즌 초반, 7월 31일 기준
자료: Factset, 삼성증권

유틸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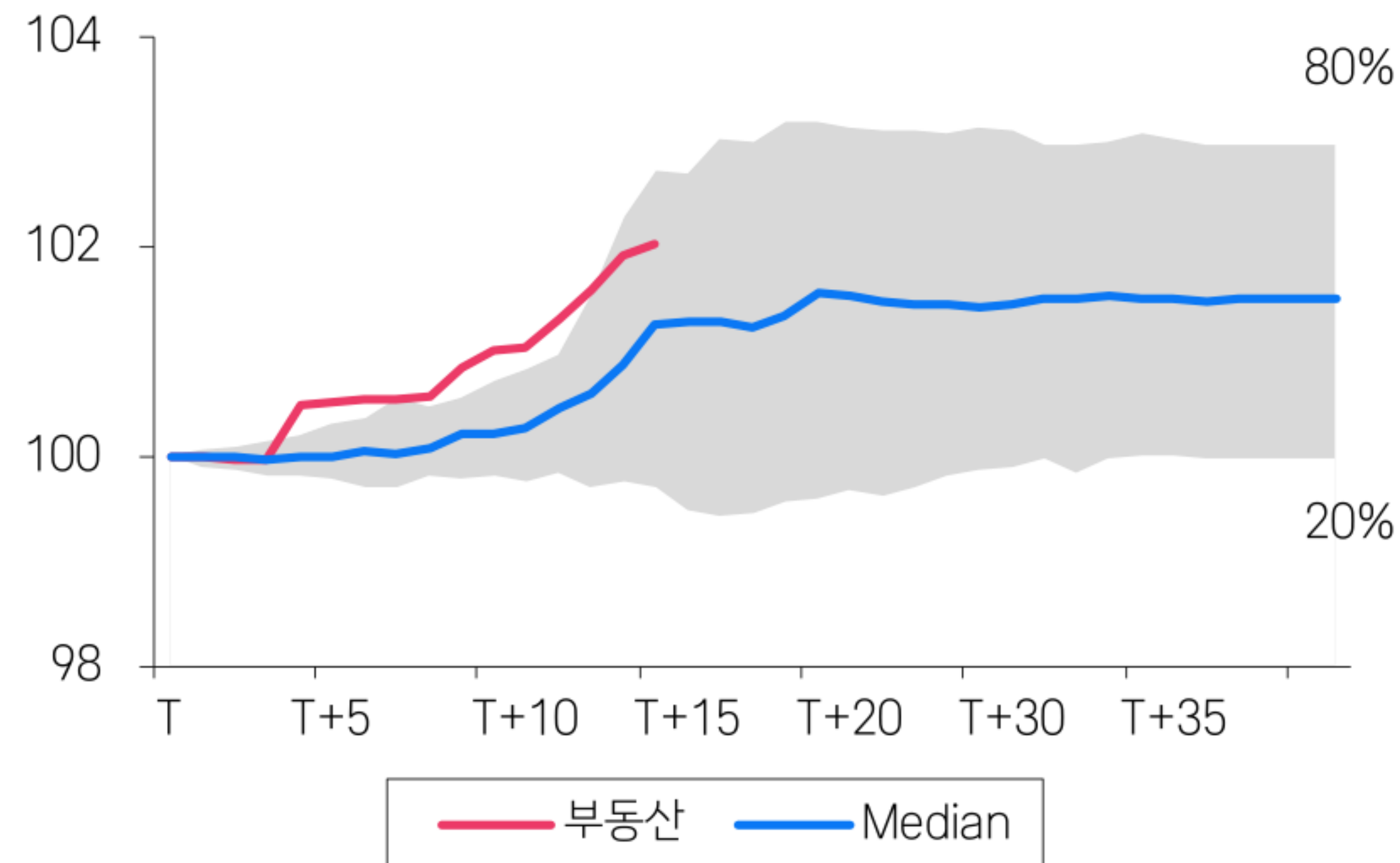
(지수화: 분기 실적시즌 초=0)



참고: `10년 이후 Median, 백분율 20,80%, T= 매 분기 실적 시즌 초반, 7월 31일 기준
자료: Factset, 삼성증권

부동산

(지수화: 분기 실적시즌 초=0)



참고: `10년 이후 Median, 백분율 20,80%, T= 매 분기 실적 시즌 초반, 7월 31일 기준
자료: Factset, 삼성증권

S&P 500 2분기 실적 캘린더 – 8월

발표 시간	월	화	수	목	금
	3일	4일	5일	6일	7일
개장 전		맥도날드(MCD) NRG 에너지(NRG)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ADM) 볼(BALL) 듀폰(DD) 가트너(IT)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APO) 캐터필러(CAT) 아이덱스 래보러토리스(IDXX) 타이슨 푸드(TSN) 로우스 코퍼레이션(L) 에코스타(ECHO) 메리어트 인터내셔널(MAR) 프로그레시브 버크셔 해서웨이(BRK.B)* 김벌리-클라크(KMB) 머크(MRK) 지브라 테크놀로지스(ZBRA) 애플티브(APTV) 화이자(PFE) 김코 리얼티(KIM) 듀크 에너지(DUK) 로크웨 오토메이션(ROK) 커민스(CMI) 퍼블릭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그룹(PEG) 시스코 코퍼레이션(SYY) EOG 리소시스(EOG)* 익스피다이터스 인터내셔널(EXPD)* 마라톤 페트롤리엄(MPC)*"	크래프트 하인즈(KHC) 센코라(COR) CVS 헬스(CVS) 월트 디즈니(DIS) 아이언마운틴(IRM) 일라이 릴리(LLY) 글로벌 페이먼츠(GPN) 우버 테크놀로지스(UBER) 필립스 66(PSX)	컨스텔레이션 에너지(CEG) 파이서브(FISV) 큐리그 닥터페퍼(KDP) 켄뷰(KVUE) 비아트리스(VTRS) 코노코필립스(COP) 데이터독(DDOG) 에버지(EVRG)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HWM) 조에티스(ZTS) 폭스(FOX) 랄프 로렌(RL) 샘프라(SRE) 트림블(TRMB)*	비스트라(VST) PPL(PPL)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ARE) 다이아몬드백 에너지(FANG) 원옥(OKE) 온세미컨덕터(ON) 버텍스 파마슈티컬스(VRTX) 윌리엄스 컴퍼니스(WMB) SBA 커뮤니케이션즈(SBAC) 팔란티어(PLTR) TKO 그룹 홀딩스(TKO) 클로락스(CLX)	암젠(AMGN) 아리스타 네트워크(ANET) 데본 에너지(DVN) 에머슨 일렉트릭(EMR) 길리어드 사이언스(GILD) 인터내셔널 플레이어 앤 프래그런시스(IFF) 모자이크(MOS)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PSKY) 부킹 홀딩스(BKNG) 윈 리조트(WYNN) AMD(AMD) 프루덴셜 파이낸셜(PRU)	알버말(ALB) APA(APA) 애틀로스 에너지(ATO) 코페이(CPAY) 도어대시(DASH) 허니웰 에어로스페이스(HONA) 모토로라 솔루션즈(MSI) 뉴(NWSA) 옥시덴탈 페트롤리엄(OXY) 솔벤탐(SOLV) 텍사스 퍼시픽 랜드(TPL) 웨스턴디지털(WDC) 액손 엔터프라이즈(AXON) 익스피디아(EXPE) 애플빈(APP) 이베이(EBAY) 샌디스크(SNDK) 블록(XYZ) 메트라이프(MET) CF 인더스트리스(CF)	에어비앤비(ABNB) AIG(AIG) 컨솔리데이티드 에디슨(ED)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MCHP) 더 트레이드 데스크(TTD) 젠 디지털(GEN) 몬스터 베버리지(MNST) 리퍼블릭 서비시스(RSG)	테이크-투 인터랙티브(TTWO)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개장 전		카디널 헬스(CAH) 바이오-테크네(TECH)*	암코어(AMCR)	테페스트리(TPR) 로스 스토어스(ROST)*	
장 마감 후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SPG)	루멘텀 홀딩스(LITE) 슈퍼마이크로컴퓨터(SMCI)	코히런트(COHR)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MAT)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개장 전		홈디포(HD)	에스티 로더(EL) 타깃(TGT) 로우스(LOW) 아날로그 디바이시스(ADI) 시스코 시스템즈(CSCO)* TJX(TJX)*	월마트(WMT) 디어 앤 컴퍼니(DE)* 달러 트리(DLTR)* 마벨 테크놀로지(MRVL)* 워크데이(WDAY)*	
장 마감 후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 (KEYS)	노드슨(NDSN)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개장 전	팔로알토 네트워크(PANW)*	잭 헨리 앤 어소시에이츠 (JKHY)*	오토데스크(ADSK)* 세일즈포스(CRM)* 윌리엄스-소노마(WSM)*"	베스트 바이(BBY) 달러 제너럴(DG) 호멜 푸즈(HRL)* 룰루레몬(LULU)* 울타 뷰티(ULTA)*	
장 마감 후		인튜이트(INTU)	애질런트 테크놀로지스(A) 엔비디아(NVDA) 시놉시스(SNPS)		

참고: 미국 현지 시간 기준, 발표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4시 발표는 장 마감 후로 간주, * 발표 시간이 미정인 기업, 7월 31일 기준 / 자료: Factset, 삼성증권

Samsung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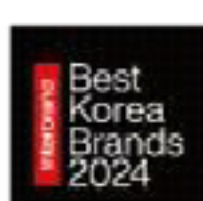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